

# 한국당 추천 논란에 5·18 진상규명 표류

### 추천 위원들 계엄군 만행 부정·역사 왜곡 행적에 거센 반발 조사위 출범 지연·진상조사 과정 전반서 각종 부작용 우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위원 9명의 행적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반발이 거세다.

5월 단체·시민사회단체·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재추천 또는 추천권 포기를 요구하면서 조사위 출범 과정과 향후 활동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7일 5·18 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해야 하지만, 한국당이 4개월여간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출범이 미뤄져왔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 '북한 특수부대 광주항쟁 투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와 1980년 5·18 당시 광주를 진압한 공수여단 대대장 출신 변갑남 씨를 추천 위원으로 검토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당은 특별법 시행 123일째인 지난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사무처장을 상임위원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차기환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계엄군의 만행을 부정하거나 5·18 정신·가치를 폄하한 진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5·18 진상규명 관련 경력이 없어 전문성과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갖춰야 할 검증이 필요하다고 5월 단체는 설명했다.

이 전 기사는 광주사태 관련 10대 오보·과장이란 기사(월간조선 1996년 4월호)에서 '검찰의 5·18 수사 결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계엄군의 진압 과정 등)가 과장·왜곡됐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흘러있다고 주장해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당시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샀다.

차 변호사는 '계엄군이 시위대를 조준사격한 적 없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역사를 왜곡해왔다. 5·18을 폄하하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수차례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행적을 검토한 5월 단체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이 실제적 진상규명에 앞장서기보다는 해방 농을 가능성이

높을지'며 선임을 반대했다.

5·18 쟁점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 역사관·진정성·사명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먼 부적합한 인사가 추천되면서 조사위 출범 지연, 진상조사활동 표류 등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회의장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한국당 몫 추천 인사의 임명을 거부할 경우 정치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7조상 위원 추천이 정당고유 권한인 만큼 뚜렷한 결격사유

가 없으면 임명 거부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추천 인사 3명이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엔 위원회 규칙 제정, 조사관 채용, 조사 방향 설정·내용 검토, 조사보고서 작성 등 위원회 활동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들이 진상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5·18 헬기사격 특조위 활동 때 '특정 위원들의 개입'으로 군 비밀조작의 역사 왜곡과 관련한 조사내용 일부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되거나 헬기사격 실체를 부정하는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5·18 특조위에서 활동했던 한 연구자는 "위원 각자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사 방향과 성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한국당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쳐 내놓은 대안치고 저의가 의심스러운 인선을 했다. 39년 전 광주의 진실을 온전히 규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선 안 된다.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을 다시 추천하거나 추천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작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명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압매장 사건 등이다.

최남규 기자



해난구조대 '맨몸수영' 17일 오전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이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만 일대에서 흑한기 훈련을 펼치고 있다.

## '현대판 음서제' 금호타이어 노조원 자녀 채용 특례조항 폐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현대판 음서제(蔭給制)'로 비판 받아온 '정년퇴직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17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이어진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사회적 지탄이 일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항은 금호타이어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모터스, 롯데정밀화학 등에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국점감사를 전후해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진 후 취업난에 내 물린 청년층을 중심으로

본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주요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련 조항을 없애기 시작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단체협약에는 명시돼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사회적 공분만 확산할 것을 우려해 폐지에 동의했다.

20여년 만에 폐지기로 결정된 이 조항은 지난 2000년 단체협약 당시 만들어 졌다.

'정년퇴직자 조합원이 요청할 경우 입사 자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특혜성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후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왔다.

임형택 기자

## '무시했다' 노래방 업주 살해 50대 구속기소

광주지검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와 함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2시25분께 광주 북구 한 노래방에서 업주 B(58·여)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가 자신의 노래방 이용을 거부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 고흥 외나로도 해상서 어선 화재 1명 사망

17일 오전 고흥군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5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13명 가운데 11명이 구조되고 외국인 선원 1명이 숨졌다. 또 다른 외국인 선원 1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북동쪽 6.4km 앞 해상에서 여수선적 근해안경망 Y호(85t·승선원 13명)선미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배에 불이 나자 승선원 13명 가운데 중국 국적의 L(29) 씨가 해상에서 추락해 실종됐다. 베트남 국적의 H(22) 씨는 진화 후 선미 화질상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베트남 국적의 40대 선원 1명은 불을 끄다 손에 3도 화상을 입고 고흥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선원 10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불은 해경경비함정 10척, 해경구조재, 항공기 2대, 민간선박 5척이 동원돼 진화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 화순서 일가족 탄 차량 전복...1명 사망

화순의 한 국도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7일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33분께 화순군 남면 한편도 1차선 도로에서 A(70)씨가 몰던 SUV 차량이 농로 쪽으로 튀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4)양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B양의 부모, 언니 등 4명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교통경찰이 음주사고' 20대 순경 직위해제

교통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교통안전계 소속 A(27)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6일 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사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계획이다.

## 소주병으로 편의점 직원 폭행 20대 강도 체포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편의점에서 둔기로 여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여직원 B(20)씨를 폭행한 뒤 계산대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마,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께 인근 거리에서 배회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